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의 김수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막이 다가오면서 선수촌과 경기장 공사도 손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벽한 경기 운영을 위해 조직위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국제수영연맹, 대한수영연맹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도 '대회의 꽃'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는 오는 5월부터 경기장과 선수촌에 배치돼 통역, 의전, 시상 등 31개 분야에서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완벽한 경기운영 = 조직위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국제수영연맹, 대한수영연맹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6개 종목별로 대회운영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경기연습, 시상, 도핑관리 등 현장운영계획을 수립해 각 경기장에서 최상의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전분가를 종목담당관으로 위촉해 조직위 관계자와 함께 경기시설 및 경기진행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광주와 조직위는 경기운영과 입장관리, 수송, 의료 등 분야별 지원계획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과 현장 중심의 협업을 하고 있다.

◇ 쾌적한 숙소 제공 = 조직위는 선수와 임원, 미디어진 숙박을 위해 선수촌아파트 25개동 1660세대를 제공한다. 이중 선수-임원엔 14개동 1050세대, 미디어엔 10개동 570세대를 배정하고 운영실 1개동 40세대를 마련한다.

마스터즈 대회는 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선수촌 1620세대에 6000여명이 머물 수 있게 된다. 각 선수들과 미디어진은 정치와 종교, 문화, 언어들을 고려해 숙박이 배치될 계획이다.

FINA 주요 인사와 국제기술인원, 조직위 조정인사 등은 광주시와 나누시, 여주시 등에 마련된 분부호텔에서 머물게 되며, 국내심판 등 경기진행요원과 도핑관리 인력, 개·폐회식 공연인력 등 대회운영인력은 비즈니스호텔과 대학기숙사 등에 머문다.

특히 가족들이나 클럽 동호인들과 광주를 찾을 마스터즈 선수는 대회 등록과 함께 선수촌과 더불어 일반호텔과 홈스테이, 텀플스테이, 기타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지구촌 최대의 수영 축제 ... 광주, 평화의 물결 속으로



마이클 펠프스



격렬한 몸싸움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수구. 한국 남자 수구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확보했다.

◇ '대회의 꽃'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 = 대회의 얼굴인 자원봉사자는 총 3000명으로, 이번 달에 최종 선발돼 5월부터 경기장과 선수촌에 배치돼 통역, 의전, 시상 등 31개 분야에서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 서포터즈는 1만여명으로 구성된 계획이다. 광주지역의 시민, 학생,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집해 4월 팀 구성 및 교육을 거쳐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시민 서포터즈는 30명에서 100명 단위로 팀을 구성해 선수단 환영·환송, 국가별 경기장 응원, 외국인 관중소방안 내 등의 활동을 하며, 광주를 찾는 각국 참가자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좋은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 안전대회 준비도 순조 = 광주와 조직위는 무사고·무결점의 안전한 대회개최를 위해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등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테러 안전활동,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화재예방·구조·구호활동 등을 위해 일일 최대 40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회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26개 지역 종합병원, 5개 의료단체와 긴급 의료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고 긴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대회 기간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 분부호텔 등 20개 대회시설에 의료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하며 엠블런스 등 각종 의료기기를 제공한다.

경기장 의무실은 매 경기시간에 맞춰 운영되며 선수촌에 설치된 메디컬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급 환자 이송과 대량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사자에 대응 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여름철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정보 모니터링 600개소를 설치해 철저히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 한다.

지난해 여름 광주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38일 동안이나 계속됐다. 광주와 조직위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폭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수송 및 입출국 지원 = 광주와 조직위는 선수-임원, 심판, 미디어를 대상으로 승용차 250대, 승합차 60대, 버스 110대 등 수송 차량 약 420대를 통해 효율적인 수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평동3차 일만산입단지 내에 수송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수송센터를 설치해 개·폐회식 수송과 운영인력을 수송하고 화물차고지를 수송서비스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식공방인 인턴, 김포, 무안 공방에서는 신속한 입국 수속을 위해 선수권대회 참가자의 출입국 전용(우대)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고속열차(KTX)를 인천공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임시 편성하는 것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이다.

조직위는 임시 주차장 10개소와 차고지 2개소, 수송차량 대기장 1개소를 설치하고 수송중단상황실의 지휘를 받는 선수촌, 미디어, 분부호텔, 출입국 등 대상별 수송센터를 설치해 대회 참가자에 대해 입국에서 출발까지 편리하고 신속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회기간 선수와 임원, 대회운영원 등 대회 참가자에게 관광 및 쇼핑, 출퇴근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D카드(등록인종카드)를 소지하고 유니폼을 착용한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도시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2부제 자율 실시, 수송 동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교통통제 등 교통특별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 풍성한 문화행사 및 친절한 손님맞이 =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풍성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임, 공연 퍼포먼스, 연극 등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여름시즌 행사를 대회기간에 맞춰 확대·연장하고, 대인아시아드 확대 운영되며, 예술품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의 거리 문화체험 행사'가 집중 개최된다.

광주시티투어 버스는 6개 노선이 매주 토요일 확대 운영된다. 거리리뷰와 도보중심의 '광주100년 시간 투어'와 차내 영상과 음악 중심의 '5-18광주 오월투어' 등 테마형 시티버스 2개 노선이 운영되고, 무등산권, 5-18유적지권, 예술광역권 등 순환형 시티버스 3개 노선을 비롯해 외국인 대상으로 대회기간 매일 운영되는 특별버스 1개 노선을 개발 중에 있다.

도 경기 후 선수들과 동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해외 대학생 관심사에 맞는 패키지와 지역행사나 전시행사, 문화예술, 맛집,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패키지, 동호회, 가족단위별 체험형 관광상품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선수촌과 경기장 마켓스트리트,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 쾌적한 숙소·안전한 대회·풍성한 문화행사 대회 준비 착착 새로운 수영 황제 카엘렙 드레셀 등 스타 선수들 대거 참가



여자 접영 100m와 200m 기대주 안세현.

가 나라 음식문화교류, 전통음악공연,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전시·문화체험 행사도 열린다.

국내외 손님맞이를 위해 경기장·선수촌 등 21개소에 꽃장식물을 설치하며 경기장 주변 등 20개소에 경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선수촌 인근 아파트 20개단지 8000여 세대에 외벽도색과 노후 간판정비, 식음료·숙박업소 위생·친절교육 등을 통해 청결한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한다.

◇ 입장권 예매도 본격화 = 입장권 예매도 손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역 기업과 단체, 시민들의 입장권 단체구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개최식과 6경기 76개 세부 종목의 입장권은 지난 1월2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4월 1일부터는 현장판매를 시작했다. 조직위원회와 광주시청 메인발권센터와 KTX 서울역, 용산역, 광주송정역 등 전국 주요 20개 KTX철도역에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개회식은 4만명에서 15만명, 일반경기는 1만명에서 7만명으로 구배 할 수 있고, 조기구매 시 4월까지의 10%, 6월까지의 5%가 할

인된다. 특히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는 50%, 청소년은 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구매 시 개최식 10%, 일반경기 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 눈여겨 볼 종목과 선수 =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200여개국에 중계되며 1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대단한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다.

'수영의 꽃'으로 불리는 경쟁에서 주목할 국내 선수는 지난 17회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낸 안세현과 김서영 선수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인 안세현은 여자 접영 100m와 200m 두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 차례나 작성하며 접영 100m에서는 5위, 200m에서는 4위에 올라 한국 여자 수영 선수로는 역대 최고 성적을 잇달아 갈아치웠다.

김서영 선수는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2분08초34를 기록, 당시 세계랭킹 1위 오하시 유리(2분08초88)를 제치고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듀엣 구슬(왼쪽)·김기영.

새로운 수영황제로 등극한 카엘렙 드레셀 선수도 눈여겨 볼만하다. 드레셀은 2017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7관왕에 오르며 펠프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올라 광주 대회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북한의 참가가 예상되는 다이빙과 아티스틱수영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은 2017년 선수권대회에 경쟁, 다이빙, 아티스틱수영에 참가해 싱크로 다이빙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 2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종목은 수구다. '수중 핸드볼'로 불리는 수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는 종목이지만 격렬한 몸싸움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유럽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종목이다.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수구 출전권을 확보했으나 여자 수구팀이 없어 무용지물될 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문제를 광주시와 조직위, 수영연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북한과 함께 남북 단일팀 구성해 출전권을 활용키로 하고, 수영연맹을 통해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다. 광주와 조직위는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남북 단일팀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제수영연맹(FINA) 등과 협의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역에서 열린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에서 일부 종목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으며, 2월 15일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열린 남북 체육장관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의 친서를 북한 체육상에 전달했고, 국제수영연맹도 북한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광주와 조직위는 김미래, 김규향, 현일영 등 북한 선수 참가와 남북 단일팀이 성사돼 대회 흥행과 담보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철인삼미가 펼쳐지는 '볼 수 마라톤' 오픈워터수영, 아름답고 화려한 '수중 발레' 아티스틱수영, 보는 이들에게 아찔하게 만드는 27m 높이의 하이드라이프까지 광주수영대회는 한평생 보기 힘든 다양하고 진귀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창사67주년**  
**광주일보 Perfect & Pride**

35

한국민과 고객의 사랑으로 성장한 한전KPS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전KPS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고객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 - 한전KPS!  
**한전KPS 주식회사**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 국내발전설비 정비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신재생설비 정비

**창립 제35주년**  
www.kps.co.kr

**고객과 함께 한 35년, 고객과 함께 할 35년!**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 - 한전KPS!  
**한전KPS 주식회사**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 국내발전설비 정비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신재생설비 정비

**대항민국의 전기가 똑똑해집니다**

한전KDN의 ICT기술력으로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해집니다

전력과 ICT의 만남으로 에너지ICT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랜에너지 세상 의 리더 한전KDN  
고품질의 전기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에서 송전, 배전, 판매까지 전력계통은 물론, 창의와 융합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이끌어하겠습니다.

**KDN 한전KDN**